

몇해 전에 나는 「韓國建設史」라는 題下의 글 한편을 쓴 일이 있었다. 두툼한 책 한편분량은 되고도 남을 제법 방대한 양이었다.

소설이나 써서 먹고 사는 내가 建設史에 손을 댈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나는 어느 건설관계단체에 근무하면서 홍보책자인 월간지의 편집일을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아무리 노가다회사의 집합체라 하더라도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한데다 무슨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교훈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찾아내려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선 조선시대 후기로부터 8·15직 전까지의 建設史를 정리하기로 하고 사학자들 비롯 관련학계 및 업체, 기술계를 샅샅이 뒤져 필자를 물색해 보았으나 불행하게도 집필을 맡아줄 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기록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다.

별도리 없이 역사학, 경제학, 토목·건축학에 백지나 다름이 없는 필자가 이 어려운 일을 해 내기로 작정하고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 관청 등을 뒤지고 다녔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눈에 띄었다. 일제시대의 일본학자, 기업인, 조선총독부 등의 자료가 비교적 완벽하게 정리·보존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놀랍게도 일본인들은 저들의 침략기간의 건설기록 외에도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까지 우리 문헌을 뒤져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보고 고마운 마음과 함께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韓國建設史」는 일단 8·15이전까지 기록함으로써 일단락을 지었으나 그 뒤 또 무슨 인연인지 어느 건설회사의 社史편찬의 일을 맡아 8·15이후의 건설사 정리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면서 또 한번 놀라고 당혹스러웠던 것은 8·15이후 60년대 초반까지 약 15년~20년간의 기록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尠無한 상태라는 점이었다.

전국이후 정부관청은 관청대로 민가 체계가

서지 않고 어수선한 가운데 기록을 정리, 보존하는 일에 손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한 탕' 하는데만 정신이 팔려 기록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살았을 법하다고 이해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보다 인쇄술이나 종이사정 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던 조선시대에도 온갖 필요한 기록들을 정리, 보관해 온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할 때 해방 이후 15년간 그토록 각종

## 技術者와 記錄

李 淸  
(小說家)

기록의 공백상태를 지속해 온 것은 아무래도 너무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다.

흔히 한국인들은(일본인에 비해) '기록할 줄 모르는 민족'이라는 자조적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쌓아놓은 찬란한 기록문화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요즘은 다 잘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1호선이라는 거창한 토목공사를 해놓고도 『事誌』 한편 남기지 않았다. 2호선부터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공사지를 꼬

박꼬박 만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1호선공사의 종합적인 자료를 구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 손꼽을 정도로 큰 규모의 어느 화력발전소 건설의 종합보고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사정을 알아보니 우선 예산타령이 나왔다. 애당초 무슨 큰일을 벌일 때 장차의 기록보존을 위한 자료수집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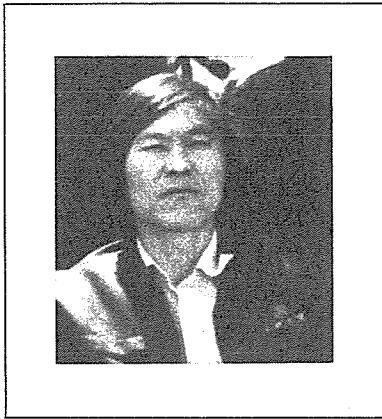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귀찮은 일거리를 맡지 않으려고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기록이 필요하냐는 데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장사꾼(기업)이 돈만 벌면 됐지 기록은 해서 뭐하느냐, 오히려 귀찮게 치부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을 왜 하느냐, 단체나 기관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공적을 이루기도 바쁜 판에 굳이 왜 기록따위를 정리하고 보존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기관장, 단체장, 기업주들의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다. 제법 거창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자신들의 활동영역에 대한 아무런 통계도, 기록도 갖지 않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그 모든 일이 一過性으로 묻혀져 버리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을 두고 거창하게 역사의식의 결핍이니 뭐니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소홀히 하고 그 방면에 둔감한 사람도 자신이 필요할 때는 기록을 찾으러 다닌다. 이처럼 '남의 기록'이 필요한 만큼 자신도 기록을 남겨 '남'과 후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모여 역사라는 큰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다.

실례천만의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工科大學의 교수들 중 제대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기술, 과학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조차 전달할 줄 모른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도 역시에 기록에 의하여 경험이 축적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본사람들 처럼 미주알 고주알 기록하는 습성도 좋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기록에 너무 등한시하여 正史보다 秘話가 판을 치고, 5~6년전의 일이 벌써 古代史처럼 어둠속에 묻혀버리는 이런 사회도 건강한 사회는 절대로 아니다.



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이 끝난 후에야 자료들을 새삼스럽게 수집, 정리하려해도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인력의 문제이다. 기록을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우수한 두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개 관공서, 단체, 기업에서 이런 일을 맡아하는 부서는 '찬밥' 신세이고 일을 해봐야 빛도 나지 않는 데다 승진할 기회도 적고 고과점수도 따지 못한다.